朝鮮日報 朝刊

發行人 方應謨 編輯兼印刷人 金錫泰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十一番地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政黨聯繫運動의意義

結局은政黨否認論

一

議會開會를 目前에 두고 東京政局에는 또 다시 한참동안 問題되든 政黨聯繫運動이 이러낫다. 政策協定이냐 政黨聯合이냐 名目은 달지마는 어느것이나 政黨不信任의 當然한 非難을 政黨과 政黨과의 政爭의 緩和, 非常時局에 對處키 爲한 擧國一致의 雅量을 보임으로써, 除去하고 다한 政黨으로서의 存在를 永續하려함에는 共通된다. 그러한만큼 政黨聯繫運動이란 政治自身에 對한 協力工作이라는 點보담도 政黨自身에 對한 協力工作이라는 點에 特徵이 잇는것은 否認할수업는 事實이다. 또한 一方으로 齋藤協力內閣에 政友,民政이 다 함께 閣僚를 보내여 이미 協力은 하고잇지마는 政黨所屬閣僚를 通한協力은不足하니 政黨과 政黨이 直接連繫하자는 一種의 補强工作이라고解釋한다면 協力內閣의 强化를 意味할수도잇지마는 今回의 連繫運動의 斡旋者인 中島商相도 그 主要目標가 憲政擁護 政黨信用回復에 잇는點을 言明한것으로 보아도 今回의 連繫運動이 亦是 政黨以外에서 오는政治的壓力에 對한一種의共同防衛運動임은틀님업다。

二

政友會와 民政黨의 連繫가 엇더한 形式과 엇더한 內容을 가지고 形成될것인지는아즉 斷言키어렵거니와 政黨과 政黨이 分立한다는것은 各政黨의獨特한 政綱이 잇기때문인데 다른政黨들을 連繫한다는것은政治工作의 目標에잇서 『異』를 될수잇는대로바리고나아가 『同』을 求함에 잇게슴으로 政黨의連繫는 自然 各政黨의 特色을 稀薄하게하는結果를 伴할것은 自明의理이다 그럼으로 政綱이 다름으로 政黨이 分立되고 政黨이 分立됨으로 議會政治가 樹立되고 議會가 잇슴으로 各政黨의 政綱과 治績에對한 人民의 批判을 選擧를通하야 行하는것이 政黨政治의 妙理인데 一定한 政黨이 一定한 政黨으로서의 存在를自進하야 稀薄케 한다는것은이즉 政黨自身의 存立의 根據인 政黨政治의 自己否定밧게는 되지못한다는것은 避할수업는 政黨連繫運動의 宿命이다

三

勿論 今日 日本의 政黨連繫運動이란 政友會와 民政黨의 連繫를 意味하는 것임으로 政友會、民政黨 어느것이나 五十步 百步의 質的으로 큰 差異업는 이두政黨의連繫란 우에말한 政黨分立의論據에서評價될것은 못되나 적어도連繫의目標가 憲政의擁護에 잇다는 限에서는 그것이도리혀 憲政의 本義에서反對되는結果를 生하고 이리하야 結局은政黨以外에在한 强한 政治的壓力에制約되면서 議會政治의 基礎가되는 政治에 對한 言論의 自由는 非常時의 國論統一의 名目으로 는 政黨自體의 自己解消의道와高度로制限되고 終局的으로도 犧牲을밧게 될것이다 또한이것은外國의政黨과가치保守主義 自由主義 社會主義等과 가치比較的明瞭한 世界觀政治哲學의分野를一定한 基礎에서 構成하야 演行되는 政黨政治가 事實上으로 實으로이려라고할 差異업는 兩大政黨이 單히 黨員과 首領과의 傳統的情實關係 支持財閥과의關係等으로 分立되여잇지못한 日本의 現實로서는 不可避的인 自己告白이라 할것이다

農相提案의 追加豫算計上 藏相依然不承諾

繼續事業은絶對로不承認意向

注目되는農藏相對立

【電通東京電話】 第八次內政會議는 二十二日定例閣議散會後午後一時半부터 前回의會議에서 帶地의安定保全 救農土木事業 其他問題에關하야後藤農相 高橋藏相 三土鐵相等間에對立的意見을生하얏스므로마침내結論에到達치못하고 齋藤首相은 此間의關係를綜合하기爲하야 二十日午後 高橋藏相을訪問하야 懇談을하고다시二十一日午前十一時堀切書記官長으로하야금 高橋藏相을訪問케하얏는데藏相은依然히內政會議에서의 後藤農相의提案을곳追加豫算에計上하는데對하야 承諾을與치안코또來年度豫算編成方針으로서繼續豫算으로될만한것에對하야는어떤事業이라도絶對로承認치안흘意向이잇서 假使二十二日의內政會議에서救農土木事業과如한 繼續的性質을 帶한事業에對하야 後藤農相이 그豫算을主張할지라도이것을追加計上하기는不可能하다고觀測한다 따라內政會議에提案한議案에關한豫算은 內政會議를떠나 다시別個로藏相과農相의折衝에依하기로될것인바 後藤農相으로서는 어데까지든지內政會議의決定을 引用하야 經費를 追加豫算에計上하려하며齋藤首相으로서도 二十日의會議로서 一旦못낸意向을가지고잇는바 後藤、高橋兩相의對立關係가남어잇슴으로 一回의會議만으로 終結하기는困難한模樣으로이趨移는 注目된다

日本品競爭問題

保守黨의修正案을可決 英下院에서討議

【聯合런던二十日發】 二十日英國下院에서 勞働黨으로부터또日本其他綿業競爭問題에關한重要動議가提出되야 『元來競爭的資本主義는 速히淸算할것이므로 吾人은綿業官營의基礎下에改造하고 此에依하야綿絲同業會의組織을確保할法律上의權限을與할機關을設置하고 此를政府의代表機關에 附屬식힐것을條件으로한다』는提案이잇서右動議를中心으로 綿業問題關係諸項의討議를行한바 席上에서保守黨議員엔든잇솔쓰氏는 英國各殖民地市場은 日本의競爭에依하야 甚히蠶食되야一方英國의對中貿易도 異常히侵略되엿다고述하엿는대 此에對하야商務次官바ー긴氏는答辯하야曰英國의綿業에關하야 너무悲觀的見解를가짐은생각할일이다英國品은外國品에比較하야 生産費가高하나日本品과의競爭問題를恒常下院에서쓰집어냄은決코랑카샤에對하야貢獻하는것이안이다 랑카샤는近代的設備에依하야 스스로救濟할수잇는것이다 다음엔든잇솔쓰氏로부터 勞働黨의上記動議에對한 修正案이提出되야 表決의結果百三十五票對三十票로可決되엿다 修正案內容은左와如하다 下院은 綿業復興에邁進하려는當業者의希望을 諒承하고또當業者는 此目的을達成하기爲하야 具體的結論에到할것을建議한다 右修正案可決後綿業討議는無期延期로되엿다

衆議院에對한 海軍豫算內示會

【電通東京電話】 衆議院에對한海軍豫算內示會는 二十日午前十一時부터 海相官邸에서開會하고 秋田、植原正副議長以下各派委員三十餘名이 出席하야 詳細한說明이잇고 質疑도入하야大要如左한問答이잇섯다

山崎達之輔氏(政友) 補助艦建造費의總額은 幾何나 또改裝費는繼續費냐

大角海相 建造費는 總額四億三千百餘萬圓으로 改裝費의一部는繼續費로하고認하얏다 그러치안는것도잇다

小川鄕太郞氏(民政) 表面 繼續費가아니나 事實上繼續費인것은업는가

大角海相 改裝費의一部는그것이다

小川氏 附議에서留保를付하야 豫算을承認하얏다는데如何

大角海相 特히留保를附하얏다는것은아니나 實際ㄴ運用하야될수업는데는 追加를 要求치안으면안된다는意味를述하얏슬뿐이다 但九年度만은 大略이豫算으로足할터이다

添田敬一郞氏(民政) 最後로大藏省에서난 一千五百萬圓은어대로쓰는가

大角海相 主要로補助艦艇 航空隊에써는데廿三項目에 使用하얏다

小川氏 九年度는切下한單價로追加는無用하게되면 처음要求한單價에 에누리가잇지안혓던가

荒木少將 여러가지關係가잇서그內容은明言할수업스나當局으로서는여러가지로苦心하야되엿다

原夫次郞氏(民氏) 海軍은이豫算의 實行에就하야農村에도利益을及하는듯이말하얏는데 果然그런가

大角海相 研究中인바 木材木炭가튼것은되도록東北地方等으로直接購入하려한다 職工도되도록全國各府縣에서 募集하려고생각한다

長島隆二氏(政友) 滿洲事件費란內容은무엇인가 또今後도繼續하는가

大角海相 北中國南中國의巡遣艦隊와警備上海漢口의 陸戰隊의經費 滿洲의松花江의 派遣艦隊特務機關의經費等이오今後도當分繼續할터이다

右終了後 食堂에入하야席上大角海相人事에對하야秋田議長의答辭가잇고午後一時散會하얏다

政民提携問題에 政府深甚注意

首相側近者들은樂觀

【電通東京電話】 第六十五議會를압두고政友民政兩黨의提携運動은中島商相의斡旋에依하야 廿五日芝紅葉館에開催되는兩黨領袖의會合에依하야 及其他本格的 着手에入하게되엿는대此에對한政府側의態度를보건대齋藤首相及 側近者等은政民兩黨共히現內閣의成立以來 擧國一致의前提下에 政府支持의態度를取하여온關係上今回의提携運動도 政黨不信任의勢에精神차려 政黨本來의使命을自覺하고 第六十五議會의 開會를압두고 그補强工作에 入하엿슴에不過하다하야 政民兩黨이 一致하야 政府에當하려하는 前哨이아님은中島商相이그斡旋에 出馬함에압서 齋藤首相의諒解를어덧슴에徵하여보드래도 明白하다 即政府首腦部로서는來議會에對한樂觀的態度에何等變化업고政民兩黨은 現下의政情及微妙한黨內事情으로强力的提携의成立은頗히困難하며結局兩黨의面目을세워 議會에서 政府支持의態度를明白히하는데쯧치려는듯한데 그러나 政民兩黨의 그內部에는 自進하야 局面의打開를圖할幾多의 主義主張이伏在함으로提携問題가今後如何한形式으로 進展할가는豫斷을許치안는배잇다 딸아서그進行에就하야는 政府는深甚한注意를가지고잇다

外國工業品全般에 一率從量稅賦課

印度서議會에提案?

【聯合런던二十日發】 日印綿業會商은最後의最大難關이든爲替條件에對하야서도 大略妥協의域에達하고 其他各種의問題에對해서도最後의決定的協議가되여條約의基礎에關한討議를進할順序인바 그러나最後的協定의締結을보기까지는 되지못하얏나 一方印度政廳側에서는明二十一日又는二十二日 印度立法議會에對하야 織物以外의各種國內工業製品 保護의目的으로서 一率로各外國品全般에適用할從量稅賦課를決定한 關稅改正法案을提出할것으로觀測한다

佛上院쇼ー탕內閣 信任票決

【電通巴里二十日發】 佛國上院은 今日七百六票 對五十六票의壓倒的大差로 쇼ー탕內閣의信任을 票決하는同時에官吏減俸案을包含한 財政案도可決하엿다

軍人와政治干與를 荒木陸相에質問

貴族院各派交涉員이

【電通東京電話】 荒木陸相은 二十日 午後五時 貴族院各派交涉委員을 官邸에 招待하고陸軍側으로부터荒木陸相 柳川次官 土橋政務官 石井參與官이出席하야來年度陸軍豫算을비롯하야其他 重要問題에對하야 詳細說明을하고 諒解를 求하얏나 이에對하야 一條實孝公(火曜) 石渡敏一(交友) 阪本釖之助(同和)等의 諸氏와 荒木陸相과의間에 相當히 辛辣한質問應答이 잇섯다 그內容은 大略大角海相의 招待午餐會에서와同樣이다 卽

問、軍民離間에關한 聲明書에 對하야 陸軍側의 意向은如何

答、對內的事情이란것보다도차라리 對外的意味로써 發表한것이다 陸軍으로서는 聲明書라는 구든意味로 發表한것이아니오 談話의 形式으로 한것이다

問、五、一五事件公判廷에서의 被告의 陳述並 辯護人의答辯에는 特權階級、資本家階級、政黨財閥打倒等의、刺激文句가잇고 治安을 害한것이아니엇다 如斯한 公判을도리혀 公開할것이아니엇다고생각하는데如何

答、全然同感이다 매우遺憾이엇섯다

問、濱口首相을 襲擊한 犯人佐鄕屋에對하야 陸軍將校團이 慰安會를 開催할 計劃이잇다고하는데大體 軍人이政治에 關與함과如한 態度로外이것을 云謂하는 傾向이잇는데 如何

答、各自 自發的으로 起하는問題로 어찌할수도업다고생각한다

問、最近 軍部에 對한 怪文書가 頻頻히 나오는데 이것을 取締할생각은업는가

答、極力 取締할方針이다

右와如히 陸軍側에서도 매우親切한 說明을하고 一同晚餐을 가치하고 午後八時半散會하얏다

國府의內紛으로 日滿中調整難望

殷北寧鐵路局長의努力도無效

同局長遂辭表를提出

【聯合北平二十一日發】 濟沽停戰協定의功勞者로 그後奉山北寧兩鐵路의連結實現에努力을하든北寧鐵路局長 殷同氏는南京政府의最後的決定을求코저過般來 南下中이든바 立法院長孫科氏一派의妨害와 西南派의反對聲明과其他로그正式으로 政府의承認을得치못하고 歸平하얏는데 殷同氏의日滿關係調整의實際的努力과 南京政府의內部關係로何等의效果도期待할수업고同氏는歸平後 곳北寧鐵路局長의辭表를提出하얏다

國民同盟議員會

【電通東京電話】 第六十五議會에 臨함에 當하야 國民同盟은 唯一의 野黨으로서 陣容을整하고 아울러 對議會策을 決定키위하야 二十一日午後二時부터 本部에 議員會를開하고 安達總裁以下 三十四名이出席하야 安達總裁로부터激勵演說을하고 齋藤內閣에對한 國民同盟의 態度를 明瞭히하고 午後三時 散會하얏다

追加豫算問題로 農相固執할豫定

【聯合東京電話】 第八回內政閣僚會議는 二十二日午後一時부터 首相官邸에 開會하고 齋藤首相以下 關係閣僚出席하야于先 堀切書記官長으로부터 黑崎法制局長官과 共히研究한 農村負擔輕減策諮問機關에關하야 報告하고 既히第七次會議로後藤農相으로부터提案의諸原案도 大體議了하얏슴으로前回의審議事項에關하야 協議를進하고다음追加豫算問題에就하야後藤農相으로부터强硬히論議가잇슨後 決議를 要望하고此를中心으로 相當히 論議가行하는模樣인대 結局 議會召集도切迫하얏슴으로年內에는 同日로써休會하기로되엿다

滿鐵改造는 漸進主義必要

外務當局態度愼重

【聯合東京電話】 滿鐵改造에關한所謂現地案이란것은 陸軍省의 平井一等主計로부터外務省에二十日正式으로 回附되엿는데 外務省當局은滿鐵改造案에 關한 研究는 아즉 終了되여잇지안음으로 確定的意見은述할수업다고 同問題의 取扱에 對하야 愼重한 態度를取하고잇다

一、滿鐵은 巨額의內外債를有하고 그事業도國際性을帶하고잇는故로 改組案는對外信用을 傷치안토록注意치안으면안된다

一、又同會社는 日淸、日露兩役을經하야 血肉의代償으로拂한것인즉 日本의 國家資産으로서充分保全하도록 用意하라

一、따라서 滿鐵改組에當하야는 漸進的方法을取할것이오 外務省으로서 今後獨自案을세우든지 或은參考意見을述할는지 今後研究를期待할것이다

一事一言

長白山人

姜鏞訖氏

草堂 (原名 그라스루트)作者姜鏞訖氏는 부곤하임受賞後다시『樂天的芳園』을著發하엿다『草堂』은 英、獨、佛、伊等八個國語로 飜譯되엿고 듣건대임스 누욕타임스等에稱揚의批評을 바닷고 樂天的芳園도好評이어서 노웨이語로 飜譯이되엿다고 한다。姜鏞訖氏는이兩作으로하야다만 英文壇에아니라、世界的文壇人이 되엿다。우리는 姜氏를 우리民族의자랑의하나로 사랑할것이다。英國人이 아닌 異民族으로서 英文學에 寄與한 사람이 멧사람 잇다。印度人인타고르와、波蘭人인 콘라드가튼이는 다 著名한 이어니와 姜鏞訖氏도 그中에 한 사람이될것이다。이것은 英語가 가장 勢力잇는 國語이기때문이오 또 英語를 쓰는國民이 가장 文學을 愛護하고 文士를 優待하는 까닭에서도 올것이다 朝鮮語도 永存이 되려면、發達이 되라면、外國人에게나 外人에게나 愛護되고 尊敬이 되라는 朝鮮文學의 發達은그 가장 主要한 因이될것이다。世界人이 朝鮮의 文學을 보기爲하야 朝鮮語를 배울날이 오기를 바란다。

夕刊後의市況

東京短期 大阪短期氣配 橫濱生糸後引

大信商店 大阪 ボタン ブローチ カフスボタン 仕入は當店へ

庄 津村合資會社 大阪市南區 ハギレ卸

シルバーホン 蓄音器レコード 製造大卸 大三蓄音器製作所 大阪市北區

子供服 オーバ 店內見本陳列 カタログ進呈 大阪市東區谷町 瀧本合名會社

貿易にデパートに小売店に 萬年筆と金ペン 辰己製作所 大阪市東區山之下町

半衿 冬物品揃 問屋 井上良商店 大阪市東區本町

ネクタイ 高級洋装雜貨 製造卸 稻村商店 大阪市南區

事務簡捷・能率增進 ベストスタンプ台 18型 大阪市南區安堂寺橋通三 森敬商店

製繩機 製藁打機 特價提供 東淀川區 石原農具製作所

朝鮮人向食料品問屋 大阪市東淀川區 丸京大阪支店

本社開館滿十六週年自祝紀念特別大興行

二十一日公開

「沈 熏氏評曰」 最近輸入된米國映畵中이만큼觀客 더욱이 婦女子의가삼을아푸도록울니여줄作品이업스리라고밋는다

「安碩柱氏評曰」 몃해동안여러가지映畵의試寫를보앗지만 第七天國以後 發傑映畵도서는처음보는逸品이엿다 노마샤라鑛의演技는完璧이다 이러한 映畵를가지고도宣傳이不足한것은여간遺憾이아니엿다

「徐恒錫氏評曰」 섬세한정서情緖와 고은화면보통유행하는연애극에비길작품이아니다 황홀하다 배우조차 누구나마니보아줄作品이다

「李承萬氏評曰」 逸品이다최근에본영화중이러케가삼을울니는연애극을본일이업나

滿天下婦女子의淚線을적시엿고本年度十大傑作의하나로推薦되여米國上下人士의絶讚이아즉것새로운紅淚斷腸의殉情悲曲

戀愛의極致에빗나는純美鄕 熾烈한情熱은 烈火와도갓치 情緖는 흘너서餘韻嫋嫋! 오 오! 讚美하여라 이藝術의香氣조차崇潔한寶玉篇

三十三年度掉尾를燦爛히裝飾한至高崇大한藝術映畵

永遠의微笑

SMILIN THROUGH

M・G・M 超大作全發聲日本版

名匠 시드니프랭크린監督

優名 노마 쉐라 레드릭 마치 氏 레스리 하워드 氏 主演

名匠 시드니프랭크린氏監督作品

朝鮮日報愛讀者에限하야特別優待 二十一、二十二、二十三、三日間晝夜

無料入場券 一枚式無漏進呈

團成社

洪原赤色農組事件 今日第一回公判
治維法違反外多數罪目下에 鄭濂守等百一名出廷

【咸興】 재작년 소화륙년 팔월삼십일을 전후하야 함남홍원군(咸南洪原郡) 십일개면을 중심으로 당지에 산재하여잇는 농민조합원천여명이 궐기하야 세납이래중하니 납세기일(納稅期日)을 연기하라고 삼천여군중이 군청에쇄도하야 일대시위운동을 단행하고 고리대금업자 대금조합 계(稧)등을 근본적으로 박멸하여야겟다고 천여명조합원이 곤봉을휴대하고 대금업자의가택을 강제로수색하고 장부급차용증서를탈취하야 소각(燒却)한사건의 주범정렴수(鄭濂守)외백명에 대한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소요(騷擾)폭력(暴力)강도(强盜)절도(竊盜)등죄명의 공판이 금이십이일 함흥지방법원 신축법정에서 등본재판장(藤本)주심 고(古)삼택(三宅)양배석판사 송전(松田)검사립회아래 개정되리라는데 당일출정할 피고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出延被告氏名◇

鄭濂守 嚴元植 李昌煥 溫昌鎬 金淵永 金能均 金泳徹 朴河鍾 金紹均 金泳徹 朴河鍾 金燦楨 姜達永 曹秉元 申雨澈 金浩鵬 陳浩根 朴在根 金政斗 金浩一 朴實澤 李鍾洛 林鵬湜 鄭忠模 林長得 金庚龍 崔學熙 朴晦得 崔興瑞 金相燮 張泰統 金鍾浩 朴賢鍾 金萬中 金瑞鍾 金泰乾 金金兒 金圭天 張泰乙 高鉉豐 安啓新 高琪泳 高元泳 金×勳 曹謝煥 陳鳳鳳 金應鍾 洪楨洙 韓永祐 朴在乾 徐興錫 金元得 張鳳石 徐舜錫 韓永(?) 高鉉保 徐于龍 陳信根 朴麗金 高鉉琨 曹泳雄 徐河錄 洪性柱 陳鳳洙 李桂吉 李湜 孫明基 金乙根 孫光榮 李洵洙 韓永述 李鶴奎 孫光實 李應洙 金錫瑀 鄭乙龍 李中 朴南龍 黃恪瑞 金蕃必 安炳模 金應灝 陳庚戌 李濤 趙錫和 朴潤燮 金永瑞 孫光植 林明東 孟炳倪 姜翼永 鄭濂九 李鍾河 金永佑 金應泳 張庚鳳 薛恐永 嚴永植 金瑞陽 金在杓 金永吉 沈柱湜 黃啓淵 曹晦煥

잇는 고리대금업자들이 가지고잇는장부 차용증서를 탈취할수업는 부분의것을 탈취하기위하야 포항반(浦項班)도동반(都洞班)주동반(中同班)동신반(東新班)춘동반(春同班)룡문반(龍門班)등여섯반을 만들고한반에 반장일명 회원이륙십명식 작당하야 각기곤봉을휴대하고 동년팔월삼십일을기하야 일제히 단원장소에이르러대금업자와 계의장부와 차용증서를 내여노흐라고 구타혹은협박하야 탈취소각하여 버렷다

홍원 농민조합은 소화이년구월삼일 동군주의면 학산리(州翼面鶴山里) 사립육영학원(育英學院)에 천군 이십사개 단체대표자 사십오명이 집합하야 당시태평양노동조합(太平洋勞組)조선부원인 리리규(李利奎)외 수인의 지도하에 조선운동의통일보가하야 림시준비회를 열고밀의하다가 동년 십이월 비로소 홍원농민조합을 조직하고 집행부원으로정엽수(鄭濂守) 엄원식(嚴元植)이 선정되여 천군 십일면에 십이개 지부에 오천여명이란 다수한 회원을획득하고 무산자 농민의 리익을획득하자는등 사십여개조 스로ー간아래 전후 집행위원회 이십이회와더 회어회를 열고 납세투쟁(納稅鬪爭)웅변대회(雄辯大會)월영회보(月迎會報)삼림법위반반대(森林法違反反對)부호들의 주식회(酒食會)간섭등 직접 간접행동을 감행하엿든것이다

細胞團體統一코 十二個支部設置
◇月迎會報써 지發行

三千農民이 蝟集 郡廳에 殺到示威
◇稅金減下等을 絕叫騷動

농민조합에서는 천군에 산재하여잇는 조합원천여명과 비조합원이천여명은 소화팔년 오월이십칠일 자날(市日)오후두시 전진역(前津驛)상 기차 긔적소리를신호로 일제히 홍원군청에집합하여 농민만세를 고창하면서 세납을내리라 세납의일을 연기하라고 고함을치면서 일대데모를단행하엿다한다

재한 각조합원에게 통지하야 각가 자기네들의 친척급부근에

組合員이 作隊코 百餘處를 襲擊
文書를 强奪燒却

소화륙년팔월십육일정엽수(鄭濂守)신중철(申中澈)박재식(朴在植)등삼십여명이룡원면도대천보부락나무아래에모여룡원지부미회를개최하고우리온무산농민의 리익을 획득하여야되겟다고 자보주의를 타도하고미래의신사회를건설하여 고리대금업자 계(稧)를근본적으로 회멸식혀야 겟다고하 주범정엽수의 명의로 각면에

鄭在達에 五年求刑
◇判決言渡는 來二十八日

【釜山支局電話】 제일차조선공산당사건의 관계자로 일즉히 서대문형무소에서 징역을하고 다와서 다시로서아 모스크바에서 공산대학을마치고 조선내의 분산적좌익단체를 통일하야 당을조직한다는 사명을 가지고조선에들어와든 경북김천군 김천면(金泉郡金泉面)에원적을둔일명「이요노프」정재달(鄭在達)(卅)은 작년십이월중순경 남해어장(南海漁場)에서검거되여금년팔월십이일 부산지방 법원에서 예심종결이된이래 루차공판기일이 연기되다가 이십이일오후한시 사십분부터 동법원에서경(鏡)재판장원고(元橋)검사입임으로 개정되여 사실심리를마치고 검사로부터 징역오개년의 구형이잇다 언도는이십팔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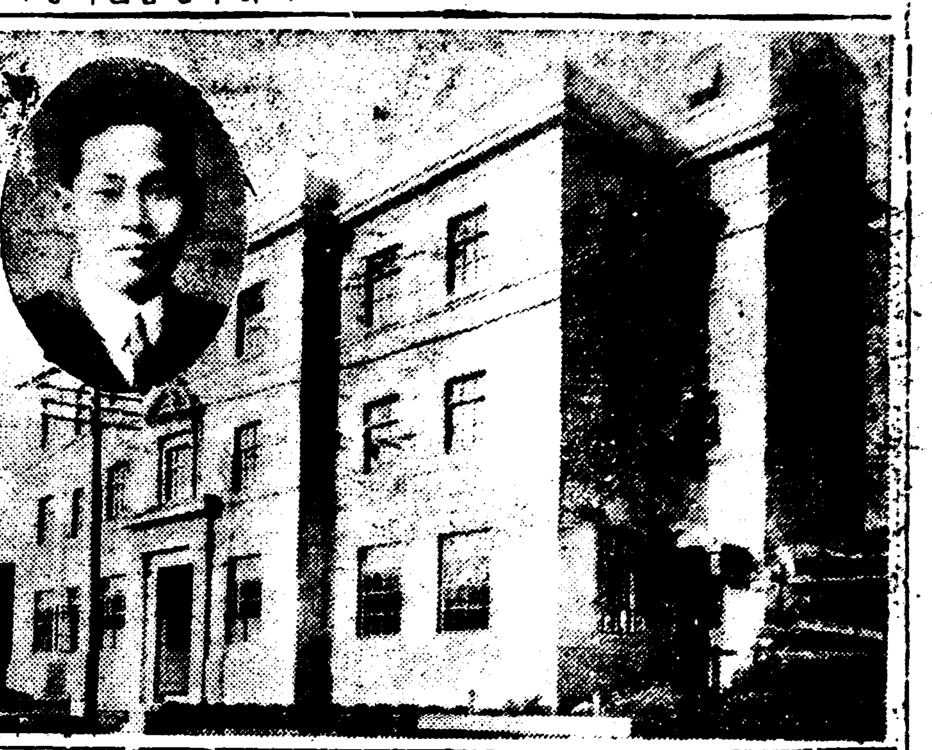
七十五歲老人이 배운것이 도적질뿐
前科十犯으로出獄하자 또犯行
警官에게泰然答辯

웃슬건가? 울일인가?

전과(前科)십범이라고하는 늙은 운경력을 가진 칠십오새의 로인이어려서부터 배회손버릇이버라지못하고 또다시 경찰에 봇자리온 이야기—양주군 시둔면 갈왕리(楊州郡柴屯面葛往里)에 본적을둔리정규(李正圭)(七五)는 남달리 장수한 생애에 전후열번이나 감옥사리를 한경험을가진 철도상습범으로서 지난칠월에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를거우 나왓는데 원래집도업고 가족도 업는몸이라 이곳저곳 불려당기다가할일은 업고 또다시혜화동(惠化洞)일백삼십사번지 박룡산(朴龍山)약방에서인삼(人蔘)한근와에 약재다수를 훔친가지고 이십일 아츰에 종로서(鍾路署)관내에 드러와서 팔려고하다가 그만 종로서원에게 들켜서붓잡혓다「늙은이가 그게무슨짓인가」하고무짓는 취조경관의 호령에 늙은이는「배혼재간이 그것뿐이라할수잇소니가 이번까지 가면감옥이열한번재외다」하고 슬슬히대답하엿다

同情週間義捐品

경성부 사회과에 드려온세말동정주간(歲末同情週間)으로긔부드려온물품은 정상(井上)쳐신구장의날근옷가지등륙십점을위시하야 헌의복과 백미(白米)등일백팔십칠점이며 현금 칠백륙십륙원사십전이라한다



東京朝鮮人基督青年會 經營事業을大擴張
後援會組織하고活動中

동경지방에 재주하는 사오만의 동포의 생활은 헤마다못에가며 또단체생활을 볼지라도아조소극적이어서 그존재를 유지하고있는것이 멋지못되여 식자로하여금 근심을마지못하게 하더니 이번에 창립이래이십칠년동안 모든난관을피하고 우리의 기관으로 엄연한존재가 되여잇는 재일본동경 조선기독교청년회(朝鮮基督敎青年會)의신사업을 시작하게되여 큰기대를준다 이는 긔독청년회총무최승만(崔承萬)씨가 시대의변천을따라서 학생중심의 청년회사업을 확대하야 더큰수효의 우리동포를상대로 사업을하기로 하게된것인데

一、장학사업 一、수양사업
一、교화사업 一、소년사업
一、부인사업 一、시료(施療)사업

등여섯가지로 그중문맹성인(文盲成人)의계몽을 목표로한교화사업과어린이의지도와훈련을목적한 소년사업은 벌서착수진행중에잇다 청년회의 신사업이발표되자 이사업의아름다운 결과를생각하는 유지는 그사업의성취를위하야 조선긔독교 청년회사업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을 선정한후 구체적으로 활동방법을 강구하고잇는바 차차명은 성과를 나타내게되리라고 한다 (사진은동경 조선인긔독교청년회관과 최승만씨)

後援을懇望 總務 崔承萬氏談

이에대하야 총무 최승만(崔承萬)씨는다음과갓치말하엿다「기독교청년회 사업은 원래광범한 의미에잇서 한 사교사업이며 회사업임으로 이러한 사업을벌서 시작하여야하겟스나 아시다십히 회의 유지를 겨우해나가는 본회로서 진작착수를 하기가어려웟습니다 나는 이모든사업이 성취에대하야 만흔자신을 가지고잇스며 그실행을위하야 한거름한거름식 거려나가고저 하며 여러분의 도음을간절이 바랍니다」

一萬二千圓盜難
廿一日午前十時安東縣서

【安東縣支局電話】 이십일일 오전십시경에 안동현아세아 양행(亞細亞洋行) 점원이 주인의 명령을받아 현금일만 이천원을 가지고 안동취인소(安東取引所)로가는도중에서 어떤자에게 몰내쌔앗긴것이 판명되여 목하 안동현경찰서에서는범인을수사하고저 엄탐중이라한다

間共事件關係者中 重要控訴抛棄者
七年役以上은三十五名

석간속보=이십일에 판결을 바든 간도공산당사건 관게자이백륙십일명중에서 무죄판결을 바든 십륙명은 물론이어니와일백구십사명 이가운데에 일곱명은 집행유예의 다수경형자가 이십일일에 상소권(上訴權)을 포기(抛棄)하엿슴으로 아직 태도를 미정한채로 남아잇는사람은 결국오십일명이다 상소권을 포기한 중요한사람은 다음과갓다

▲無期懲役(一人)=金俊傑 ▲十二年懲役 (四人)=崔成八▲朴東浩▲洪光植▲李英珪 ▲十年懲役(八人)=白致俊▲池金石▲尹昌淳▲金柄郁▲黃龍郁▲黃泰國▲崔萬億▲金德彦 ▲八年懲役(四人)=李炳熙▲車鍾洙▲許明昌▲崔大興 ▲七年懲役(十八人)=▲劉志遠▲李昌日▲韓允孫▲崔昌涌▲李鍾德▲孫昌福▲金昌旭▲朴熙喆▲朴今龍▲金泰吉▲朴仁鳳▲崔明順▲宋鍾勝▲朴永觀▲金官燮▲黃亨會▲李元相▲李成夏

團成社紀念興行 永遠의微笑
本報讀者優待

이십일일부터 시내단성사(團成社)에서 상연되는「메트로·골드윈」작품「영원의미소」(永遠의微笑)는 본보에 임이 소개된바와가치 금년중의 특작품중의하나 작품으로그내용은보통일반영화와 류를달리하야 평판이놉다 또이영화가치 싱길사한의 가면(成吉斯汗의假面)과「럭비로련」이라는 운동영화도 상영한다 이번에 단성사에서는 이십주년기념으로 입장자에는 무료권을한장식 주게하는데 특히본보독자우대권을 가진분에게는 입장료를 각등십전할인한다

忠南共黨事件關係 十六名豫審廻附
◇全泳哲外三名은釋放

【大田】 충남 경찰부에서 취조를 맛치고 일건서류와 함께 지난 칠일에 공주지방법원검사국으로 송치된 충남공산주의협회(忠南共産主義協會)사건의주범 리원인(李原人)등 십구명은 그동안 검사의 손에서 엄중취조를 바다오든바 지난십구일에 전영철(全泳哲)장창선(張昌善)강병환(姜秉煥)등 삼명은불기소로 석방되고 리원인 로명우(盧明愚)오긔영(吳琦泳)등십륙명은 긔소되여 동법원예심에회부되엿다 예심에 회부된사람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李戶喆(一名李原人)▲盧明愚▲柳基燮▲吳琦泳▲姜日求▲徐元龍▲崔在鳳▲金壬成▲曹秉昭▲盧炳愚▲姜德鍾▲曹秉哲▲柳寅喆▲盧炳模▲姜柱永▲姜秉國▲劉璁

本格的嚴寒襲來!
『스케이터』『스키어』도제철
◇二十二日부터는또四溫

추이를몰으로 지나든 변격적(變格的)기후는 근일에이르러 추이가본격적으로 닥처와 이십이일의 동지(冬至)를 압두고 이십일일의추이는 금년겨울의 첫괴롬을지어 새벽의 최저온도는 령하십도사분(零下十度四分)으로 내려가 서 서울에비하면 한도사부가 더 치위젓고 작년이십이일에 비하여 삼도가더내리엿스나 작년 십이월십삼일의 령하십일도에비하면 아직사지는 그리 춥지안은셈이다

◇이가치하야구름한점업시어름줄가티파란한울에는서북풍이 맵게불고잇서낫중에도여간칩지안타그렴고권철래의치위로 조고마한못과 개울은 모다얼어부터 치위만기다리고 잇든『스케이터』들은 아츰부터 시외청량리(淸涼里)마포(麻布)방면으로 나가 어름지치기를 하는등 이제부터 추이는아주 겨울의된목에다랏다

측후소의 관측에는북중국(北中國)에는 고기압이잇서조선방면으로 확대되여잇고 또 본남방에는 저기압이잇서 북방에서 서백리아의 찬바람이 조선으로내려 불어 이가치칩게된것이라한다 남조선은다소 흐리고 눈도온곳이잇으나 대처로 날은맑고북풍이 심하야 날이칩다 그리고 명일부터는 다소추이가덜한모양임으로삼한(三寒)에서사온(四溫)의후에들어갈모양이라한다

大同江結氷

【平壤】 십구일부터 평남일대의 긔온은 급격강하되여 도령하 십칠도 구부라는 금년 겨울에 들어서 최고긔록을 내여 대동강도 완전히 결빙된바 작년에 비하면 칠일이늣다 이로서『스케이터ー』들은 고대하든 『윈터ー스포ー츠』의 시즌이왓다고 부실부실 보관하엿든스켓을 준비하고 잇다

元山에年末警戒

【元山】 원산경찰서에서는년말경게를 대대적으로 한다는데 이십일일부터 명년일월 삼일까지의기간으로하고 시내 주요금룡기관에는 경관을 트파식이며 시내요소요소를불생응업시경게중인데총동원경관수는그연인수일천륙백명이라고한다

歲暮慈善演藝大會

日時 今月二十三、四兩日午後七時
場所 市內長谷川町公會堂
主催 오ー케레코ー드朝鮮支店
後援 朝鮮日報社

入場料 五十錢 三十錢 (本報讀者優待)

演藝目錄
管絃樂、테너獨唱、新民謠 流行歌、南道소리、西道소리、京畿소리、喜劇、史劇 模擬吹込

出演者
徐蘚錫、申不出、李蘭影、申一仙 羅品心、康錫鼎、文湖月、成光顯 金晁欽、朴芙蓉、林芳蔚、金宗甚 崔明慶、孫牧人外數人 (音樂指揮)崔虎永

◇今年에도慈善鍋

세모이다 무자비한 치위의 긔운이 놉다 울은 구슬가티얼어구울고 서리진장들으로 쏘아오는찬바람은 굶주린사람의 누뉴어렵한 두쌈을 저릴드시 드려분다 이칠귀 이치위 이바람에 울니여는불상한 궁민을위하야『거리』에 동정을 구하는구세군(救世軍)의『자선남비』(慈善鍋)! 수달피외투에 깁숙이무친배부른신사의 던져주는하치안은 잔돈푼과 여우가죽털목도리에 포근이싸인돈잇는안악미뇌 내여미는동전푼이 이자선남비를통하야 치위에떠는 그들에게는 크나큰괴세의 선물이될것이다

콜럼비아레코ー드 Columbia

朝鮮레코ー드正月新譜

流行歌 希望의북소래 A 蔡奎燁 指揮 安益祚 伴奏 慶應大學맨도린部
同 夜江哀曲 (枚一) B 安一波 伴奏日本콜럼비아管絃樂團
同 人生의恨嘆 上海의一夜 (枚一) 林憲翼 伴奏日本콜럼비아管絃樂團
兒童悲話 春恨 이래야할는지 (枚一) A 崔明珠 B 全仙草 伴奏日本콜럼비아管絃樂團
短歌 哀曲 (枚一) 沈影 金仙草 金聖雲 金蓮英 管絃樂伴奏
片時春 雲淡風景 (枚一) 李鳳姬 鼓 韓成俊

昭和八年十二月二十日 發賣日

支店長募集
奮鬪家로서 鮮內事情에通하며 信用잇는紳士를求하니希望者는 直接本社로至急履歷書送付를乞함
朝鮮詳細協合社後
京城府大門通四丁目 齋藤빌딩內
朝鮮通運株式會社 電話本局三〇一〇番 三〇一一番

京城府觀水洞參番地(바고다公園건너골목안)
外科 皮膚科 消化器病
李重樂醫院
新築落成(入院室完備) 電話(光)二三一七番

神經痛、僂痲質斯、關節炎、痛風(류ー마지스)에는 野구지
神經痛原因及自宅治療書(新刊) 說明書參考書類 無代進呈 東京市京橋區新榮通 藥師莊 東京出張所

遍橋家思 山釜
東光堂眼鏡店
檢眼 無料 大割引 賣出 官廳 學校 指定

一、弊店物品은極上絹絲製임으로永久히使用합니다
二、新品이入荷되어낙시줄(해표)갑싸게들입니다 定價表進呈
鳥捕網 極上等絹絲製 長三間幅六尺 一五圓 長五間幅六尺 二一圓 새잡는그물 特價品 長三間半幅一尺 百匁 一圓
漁具 捕雀用 卸商 秋岡商會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電話本局四三九〇番 振替京城一二一五六番

부인성약 益母草엑기스錠
前醫學專門學校教授 京城帝大醫學部講師 醫學博士 朴昌薰先生監製

어든든하나어든든히길옵시다 건강한자녀는건강한모체로부터 건강한모체는이모초엑기스錠으로부터
益母草엑기스錠은月經不順 帶下症諸子宮病의徹底的治療와産前産後의養生에 一國의婦人聖藥으로確認된古今唯一의 不拘하고神經衰弱、諸冷病、男女 消化不良에特効가잇습니다
王効 냉병 경도부조, 적백대하증, 적혈, 오소리, 혈기부족, 하초허랭, 수족궐냉, 도시허리와아래압흔데, 안색창백, 산전산후, 체반악증, 경나는데, 부종, 무시출혈, 상기외두통구역
小賣價 十日分 二圓卅錢 廿日分五圓 七十日分 十圓

月經不順、月經時에腹痛이나며 全身이 下腹이압흐며 成年이되여도 月經이업는 婦人、또 月經時期가一定치 안이한婦人이 本劑를 服用하시면 卓効가잇을 産前産後、姙娠中에는 妊娠脚氣、妊娠腎臟炎等諸病이發生키쉬 움으로益母草를繼續 服用하시면母體를健康케하며胎兒發育도 順調로되니다 産後舊血 本劑를服用하면 新鮮한血液이잘나와母體의恢復 을速히합니다
帶下症과子宮病에 子宮內膜炎、膣炎、膣가 루、淋毒性子宮病이 으로因하야下腹病이 甚하고帶下가잇는婦 人은本劑를服用하시 요

特約店 募集
本舖 京城府公平洞八八 大盛堂藥房 振替京城七八九三・電光一三五六
代理店 京城府大門通 株式會社 新井藥房

私設墓地가問題化
洞民大亂鬪演出
數百洞民、兩派로對峙
郡、警察、鎭撫에努力

【大邱】 묘(墓)를 쓴다 못쓴다하야 방금경북성주대산동(星州大山洞)에서 동민수백명이대치하야 아연형세가 험악하야저 당지경찰서와 군수、도평의원등 총동원으로 현장에급행하야 진무에노력하는 근래에보기드문 진긔한사건이 발생되엿다 전긔 경북성주군에서는 리극석(李克錫)(씨)은 지난음력 구월십칠일에 자긔부친이 사망하고 칠일을자난후월이십사일그들의 사설묘지(私設墓地)인그동리앞산에 장례를 지내려하얏든바동리리긔승(李基承)일파의재산가들이나서 전긔압산에다 송장부못으면전동리가멸망한다는말로 수백명촌민을 충동하야 장례를 방해하며 형세가 험악함으로성주경찰서에서 서원이 총동원하야 해산을명하게되여 부득이전긔 리극석도다시 시체를자긔집으로 돌려와안치(安置)한후 이런반대자측들의 량해에 진력하여오든중이엿스나반대자측에서들은 일향듯지안음으로 할수업시 별法에따러 장례를 결행하려하자 이소식을 들은 전긔 반대자측 에서는 극도로 분개하여 지난십오일 오후열한시 캄캄한밤중에 별안간경종을 란타하야 전동민니백수십명을모은후 전긔 리극석의집을 포위하여 출관하려할째에 습격코자 공긔가험악하얏다 이급보를드른 성주경찰서에서는 고하(古賀)순사부장이하다수경관이 급거출장하여 제지한바 잇섯는데 마츰내 금이십日다시시체를 전긔안산으로 운반하자 또다시 반대자측에서 돌연습격하여 와습으로 부득이 쌍방이충돌하게되엿바 중과부적으로 시체에열상(裂傷)을받은외중경상자를내이게되엿다한다 이급보에 성주경찰서에서는소림(小林)서장이하총동원으로다시류(柳)군수 도평의회원등까지 현장에급행하야목하사건의해결에노력중이라한다

平壤萬壽公普女訓導의
非敎育者的行狀
兒童에게無理悖行滋甚
學父兄積極對策講究

【平壤】 수일전평양부내만수(萬壽)공립보통학교일본인녀훈도야지(野池)=假名=라는훈도는 자긔가가라치는 이학년녀생도들이 세수를하지안엇다고 얼골에 먹칠을하여노코 박장대소를하여 만흔아이들압헤서 붓그럼을 주는것을비롯하여 조선말하는등 두아이의머리채를 가위로자르여노코이리밀치고저리밀치는등가진행패를하는외에수업료를이저버리고왓다고손등에일원이라고대서하여수업을중지시키고집으로돌려보내는 야비한 행동을 하엿슴으로 학부형들은 극도로분개하여 목하대책을 강구중이라한다 이러한례는 평양부내각보통학교에서 자조발견되는 일로서 각독관청에서는재삼고려할문제이라고한다

貧民救濟로 同情『메달』行商

【木浦】 목포중앙교회면려청년회에서는 치위와주림에신음하는빈민구제코저회원이각각동정메달을 행상하게되엿는바 일반인사는만흔동정이잇기를바란다고한다

各地에祝融發動

清津에大火
大建物四戶全燒
◇被害額約二萬圓

【淸津】 십팔일오후아홉시경에 청진부신치정 청진다구시긔숙사로부터 발화되여삼광조(三光組)사무소、사긴차포 리발관등과 이층건물사호가 전소되고소방조(消防組)의 결사적 노력으로 약한시간후에 겨우진화하엿는데 손해액은 약이만여원에달한다고한다

平壤에火災

【平壤】 십칠일밤에평양부내에서는화재 두건이잇섯다 첫재로오후 여덜시에 설암리(薛岩里)이백삼십번지 지구관(池久官)집의 부엌에서 발화되여부억에싸은 나무를태우고 진화되엿는데 원인은아궁에서 불튀의연화로발화되엿고 손해는 오원이라고 둘재는십시반경 바구리(磚九里)제일금룡상한석호(韓錫鎬)집부억에서발화된 것을소방대원이 출동하여 진화식혓는데 손해는이십원이고 원인은역시 부억에서 불이난것이라고 전헌날이 추워오를짜라 불을만히 달으게되는 이즈음에 반가정부인들은 특히 불에 조심하는것이조켓다고한다

兩處에小火
安東縣市內

【安東縣】 연말을압두고이즈음 안동현시내에 불이자조이러나는바 지난십팔일밤에는두번식이나 불이나서 고요한안동시외밤공긔를 쎄트리엇다 그일은북일조통구정목영창고무공장(北一條通九丁目永昌護謨工場)에서 오후아홉시에 불이나서 동구시반에 아동소방대 출동으로진화하엿는데 손해액은 이백오십이고 또한곳은 북일조통구정목(北一條通九丁目)청양회사인바 벼맛치농구여물 경계하든 순사두명이달녀들어진화에로력하야 불행중다행으로 손해는적엇다는바 이두가지모다 불조심하지안흔원인이라고한다

祭壇燭火로發火

【北鎭】 지난십구일밤중에평북운산군 북진면대암동(雲山郡北鎭面大岩里)홍성모 (洪成模)(四二)의집에서 불이나서 그이웃의 김준모(金俊模)씨집까지 이동이전소 되얏다는데 전긔홍성모씨는 그날자긔의모친의 장례를마치고 피곤하야 잇든모든열어친구와가치 이야기하다가 모다 잠이든사이에 제상에 켜노흔초가넘어지면서 그와가치 발화되얏는데 손해는약륙천원 가량에 달한다고한다

墜道內서作業中
又復人夫壓死
長津水電에慘死續出

【下碣川】 장진강수전회사공사장에서 참사와중경상자가속출한다함은 루보한바 어니와역시동공사장인 함주군 하기천면도홍리 제이호 돈네루에서지난십팔일 오후팔시 십오분경본적을평북 강계군 룡림면(龍林面) 에문지상토(池相道)(三二)는 터널(隧道)속에서작업하든중돌연우에서 밀구가 밀려내리는바람에이에 깔리여무참히 압사되엿다한다

星齋書伯의 展覽會延期

【大田】 대전공영회(共榮會)주최와 본보 대전지국(本報大田支局) 후원의성재화백(星齋書伯)전람회는시일과 장소를좌긔와가티 변경하얏다한다

▲日時 十二月二十四五兩日
▲場所 本町東本願寺

大田 女子裁縫講習會

▲日時 十二月二十二日부터五日間
▲場所 男子進明會館
▲會費 五十錢(實費)
○主催 大田慈母會
○後援 朝鮮日報大田支局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莞島支局 位置 莞島邑莞島面郡內里 支局長 金長烈
鳥致院支局 位置 鳥致院鳥致院驛前 支局長 孟義燮
杆城支局 位置 高城郡杆城面上里 支局長 尹香鳳
天津支局 位置 天津日界榮街四ノ一〇 廣信洋行 支局長 朴鳳樹
寧遠支局 位置 寧遠郡邑內 支局長 李玉鉉
牙山支局 位置 京南線溫陽溫泉驛前 支局長 洪承復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會寧支局 任支局長 俞翼柱 支局長 金昌濤 右解任함
濟州支局 任支局長 朴燦式 支局長 李泰潤 右解任함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延社分局 位置 茂山郡延社面九所市 分局長 崔正萬
四平街分局 位置 滿洲四平街日進街 分局長 朴亨彬
曲水分局 位置 楊平郡曲水 分局長 方喜政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葜樹分局 任葜樹分局長 金鍾主 分局長 金正完 右解任함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販賣所를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辰橋販賣所 位置 慶南河東郡辰橋面辰橋市 主任 趙景濟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販賣所를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軍浦場販賣所 主任 崔鍾殷 主任 金榮植 右解任함
星州支局 總務兼記者 孫宇鉉 右新任함
咸安支局 記者 安平波 右新任함

謹告

牙山支局 總務兼記者 李[illegible] 記者 李[illegible] 右와如히新任함
唐津支局 記者 洪[illegible] 右解任함
淸州支局 移轉位置 淸州本町一丁目一三
東部販賣所 總務兼通信員 李[illegible] 右新任함
利原支局 新山分局顧問 金昌[illegible] 右新任함
永興支局 記者 張桂[illegible] 右新任함
楊市支局 記者 宋亨福 右新任함
寧遠支局 總務兼記者 李澤[illegible] 記者 洪亨俊 右新任함

北鎭支局 記者 張[illegible]七 右解任함 溫井分局記者 車日[illegible] 顧問 尹永泰 同 鄭[illegible]星 同 金[illegible]守 右新任함
龍岩浦支局 寫眞班記者 朴永贊 右新任함
咸川支局 總務兼記者 朴雲步 右新任함
新京支局 記者 石泳河 右新任함
欽谷分局 在東京記者 李健洙 右新任함
庫底支局 總務兼記者 吳桂允 右新任함
淸津支局 記者 許星哲 右新任함
井邑支局 泰仁分局總務 金致坤 記者 宋亮根 右와如히新任함

雲峴宮의봄
金琴童 作 石山 畵
廿一의二

승후ㅅ방에 잇서서 상감의 승하 하신 것을 알은 조상하는 가슴이 덜컥하여 어쩌하여야 할지 두서를 가릴수가 업섯다。

성하는 승후ㅅ방을 뛰처나왓다 그러고 금호문으로 향하여 다름질 첫다。그러나、금호문ㅅ가지 채 미처 못하여 발을 돌이켯다。

처음에는 이 흉보에 겹한 길보를 흥선에게 먼저 알리려 한것이엇다。그러나 순서로 조대비에 먼저 가서 대비에 알리고 그 분부를 바더야 할것이므로 발을 대비전으로 돌이킨 것이엇다。

『대비마마。상감마마께옵서 승하하옵셧읍니다』

성하가 숨을 허덕이며 달려 들어와서 이러케 아뢰일 째에 대비는 안색까지 변하며

『그게 무슨말이냐』

고 재처 물엇다。

청천의 벽력이엇다。그새환후가 조치 못하엿슴은 모르는 배가 아니로되 본시 약한 상감이신지라、이러케 급변하리라고는 뜻도 안하엿든 일이엇다。

오늘날에 언케 이를줄을미리하고、흥선과 밀약을 매즌지도 벌서 二년반。밀약은매젓지만 청명이 아닌 이상에는 어쩔수 업는 오늘을 바라는 마음 조급히 기다리고 잇든 것이엇다。

성하가 자긔의 아는 것 비교적 상세히 아뢰일 동안에 대비는 눈을 힘잇게 닷고 말업시 듯고 잇섯다 그동안에 승전빗(承傳色)도 달려와서방금 대조전에서 생긴 크나큰 비극을 대비에 알리고 어서 밧비 대조전으로 출어하기를 재촉하엿다 상감승하신 이날에 잇서서는 령시로나마이 종실의 권세를 잡고 안으로는 사직의 짐을 밧들고 박그로는 임군을 대리하여 대신들에게 명령하고 지휘할사람은 이종실의가장 어룬되는 조대비 한사람밧게는 업섯다 아직 칙의대도 갈아 입지못햇스니 갈아 입고 곳대조전으로 나간다고 승전빗을 몰려 보내고 고요히 눈을 뜰 에는 대비의왜주름살이 잡힌 눈에도 란란히광채가 낫다。

『성하야』

『네』

『엇던 흥선군ㅅ댁에 다녀오너라』

『네…』

『가서 잠간 내전ㅅ가지 들어와 주십사고』

『네』

이리하여 성하를 내보낸뒤에 대비는 최씨를 불럿다。그리고 갈아 입을 의대를가져오라 분부하엿다。최씨는 분부에 의하여 즉시 옷을 가져 왓다。그러나 대비는 곳 갈아 입으려지안혓다。

마음이 조급한 지금이엇지만 오늘날을 위하여 약속하여둔 흥선의 지혜를 대비는 지금 힘닙지 안흘수가 업섯다。너무도 갑작이 다닥친일이거나、어떠케 처치를 해야하며、어떠케 사건을 진행을 시켜야할지、흥선과 한마듸의 의론을하고 시퍼다。그째문에 시간을 보내려 부러옷도 곳 갈아입지안코 뭉길거리고잇섯다。

승전빗은 련하여 대비전으로 달려왓다。갑자기 당한 이일에、재상들도 어쩌할바를 아지못하며、종실의 어룬되는대비의 처단을 밧들고저 련하여승전빗을 드려 보내서、대비의출어를 재촉하고 잇는것이다。

그러나 어쩌케 할 방책도 아직 세우지 못한 대비는 곳 나간다 곳 나간다하여 승전빗을 모도 그냥 돌려 내보내고 하엿다。

귀를 기우리면、겨울 바람소리에석기어서 궁인들의애곡성도 벌서 여기ㅅ가지 들려온다。그것을 들으면서 대비는 친친이 옷을 갈아입으며 어서 흥선이 이르기를 기다리고 잇섯다 인제는 이 종실의 최고권위인대비ㅣ공평이지 못할 봉령서 게회를세우지 대도 누다서 머리를 가루처음 사람에 업는신분이엇다

改造 新年號

特價一圓 送料五錢
東京市芝區新橋七丁目 振替東京八四〇二番 改造社

事實小說 戰鬪 日本海々戰 後篇
「海の文學者」ノウイコフ・プリボイ……尾瀨敬止
特別寄稿 N・プリボイ

小說 馬鹿……里見弴 (最近作者が遭遇したかの事件を想起し側面より彫り上げた名品)
小說 河の上で……荒木巍 (沈滞期にあるプロ文學を盛り返すべき意氣込の注目すべき力作)
小說 藪睨?……正宗白鳥 (田園の舊家に於ける親子兄弟を描き人間心理の剔抉の深さを示す)
長篇 紋章……橫光利一 (苦心中の長篇雄篇第一回を發表す文壇の偉觀)
小說 消費……武田麟太郎 (下町の高層ビルに住む人々を描き心憎い迄の錬達さ市井事物)
小說 ハムレットの母……林房雄 (次々に力作を發表し文學の爲に孜々倦まざる筆者の意氣を見よ)
小說 鶯……林芙美子 (亡父の急死を中心に最近の身邊を曝け出して哀情纏々たる力作)
小說 日曜日……志賀直哉 (久し振に接する巨匠の名品、淡々として而も香味得もいはれず)

新春大衆讀物
脚……吉川英治 (脚、脚、脚! 入り亂れて舞ふ江戸の風雲)
賴宣卿行狀記……矢田挿雲
盃 枯れ……陸直次郎 (可憐な佳人と絡む劍士の手造酒の哀切な心)
夢殿殺人事件……小栗虫太郎 (驚嘆すべき推理の漂渺たる科學的探偵小說)

犬と言葉……柳田國男 (戌年に因んで各地方の犬に關はる言葉の探究)
黑づくめ日記……新村出 (多才博識の遊子を心傷しめた黑猫珠玉の隨筆)
政界明暗錄……八面鋒
短歌 土田耕平・中島貞子 半田良平・坪野哲久
◇小泉信三論……杉山平助
◇「新聞人」村山龍平君……伊藤正德
◇山本權兵衛伯……鈴木小平
◇高橋と若槻……佐々弘雄
◇後藤農相の對農策批判……稻村順三

言論の自由 佐々木惣一
國防費と財政 阿部賢一
日本統制經濟の進展 猪俣津南雄
◇東海道史的風景……田村榮太郎
◇王朝時代の女性と文學……池田龜鑑
◇日本石器時代の生業生活……大山柏
◇競馬場商賣往來……岡田光一郎
◇私のクロンチ……藤井浩祐
家畜史雜記……加茂儀一
◇北鮮・間島詩鈔……富田碎花
◇素人無電局長さん……杉田千代乃
釋迦抹殺論……安藤政直
◇本因坊と吳清源……村松梢風
◇關門トンネルの正體……大渡順二
◇教育疑獄打診……志垣寬

熱河旅情 (熱河風物に寄せて豊かな詩情を語る)……藤木九三
ソヴイエトの日本文學研究者……阿部よしゑ
福建省獨立の展望……鈴江言一
愛蘭獨立問題とデヴアレラ……古莊國雄
國民所得論……有澤廣巳
支那數學の社會性……小倉金之助

世界情報 N・R・Aのアメリカにストライキの波★いかにして米國復興は實現されたか★注目される最近のイタリー★ナチス獨裁下の總選擧情景
ユダヤ民族の運命 (亡國二千年のユダヤ民族迫害史)……賀川豊彦
特輯漫畫 池部均
年頭の辭★卷頭言

最新世界政治經濟地圖
新機軸を誇る本誌創意の大地圖!! 世界の行動を一眸の下に瞭然たらしむ!! 官廳!! 學校!! 會社!! 各家庭の必備品に!!
本誌の創意により、諸權威と研鑽調査を協議すること半歲、こゝに新機軸を誇る堂々たる大地圖が完成した。世界六大ブロック、資源(產業)、貿易、交通、軍備に到る迄鮮明な彩色に依り一目瞭然たらしめた。而も大阪七度刷の美裝、新春の誌間に掲げて實益と興味を滿喫されよ。
附錄【地圖解說】 本文一五九頁參照

特輯 明治維新の再吟味
現下の論壇を風靡せる維新史研究に就て斯界の權威が總出動で各自の研究を發表した新春劈頭の大收穫以て激動日本の史的根底を知れ
山川均 白柳秀湖 土屋喬雄 長谷川如是閑 服部之總 德富猪一郎

財界てもおらう K・C・B

思潮中心으로본 33年度文學界 【五】

白鐵

今日의朝鮮文學界에 寂寞的 氣分이濃厚하다는것은 이상에서指摘한바와 마찬가지어니와 그러나 그와同時에 우리들은 今日의靑年인테리들에게는이러한 寂寞的面貌가잇는代身에한편 그들은積極的方向을갓고잇는事實도잇다는것을理解해야될것이다

여긔에는 今日의不安한現實에대하야 다만失望하며悲觀하는것이아니고 어느

程度 까지

積極的으로 나가려는傾向이잇다 그것이 내가여긔서指摘하려는自由主義的傾向의進步性과그의限界性이라는것이다

今年에와서는 처음에도指摘한바와마찬가지로 社會的不安이漸次深刻해지는데잇서 거긔에따라서政治的反動이 直接契機가되엿다 헛트러-의政獨權

이때에잇서는 (이문제에대하야는다른論文에잇서도 指摘한일이잇거니와)

가진意義를理解하게되며 또그려한意味로서 今年에各國에서 새로히 自由主義的文學이라는것이 문제되게된것을 理解할수잇는것이엇다

그것이 朝鮮에는 다른一般外國과가티 今年의文化的事件이現實的으로 그대로는反映이되지아엇스나 그러한 一般的情勢의險惡化에따라서 그것이 朝鮮의現實에作用되는분위기도

倍甚 되게된이상 이러한분위기가운데서 自由主義를眞實하게 固持하고잇는作家들에대하야 그들의作品이갓는進步性을是認하여特別한注意를轉向

하지아늘수업는것이다

例를들면 李無影氏가『山莊小話』에서젊은主人公(事實은作者自身)을通하야 참된意識을가진 새롭은어머니의 性的處理와 男便에대한義務 그리고빗나는母性愛에대하야共鳴하고잇는것가튼것과 蔡萬植氏가『팔녀간몸』(新家庭)과 『人形의집을나와서』에서 그리고잇는農村沒落에對한正直한觀察과 同情이며 一個의 自由主義女性이 人形의집을나와서 여러가지岐路生活을通하야 나종은 正當한基本的生活에까지發展하는

作品 內容가튼것과 李孝石氏가『豚』(이作品은 自由主義的이라는것보다는 同作者의農民小說이라고하는것이 適當할는지모르나!)을 通하야 『부직크』한 農民의 참담한現實을 그려간것等에잇서 그런作品들이 今日의現實에대하야要求하고잇는進步的意義를 發見해야할것이다 이時期에잇서 이런 作品들은特別한現實的意義를갓게되는까닭이다

33年度의詩作 ―六篇에對하야― (5)

尹崑崗

이詩人의詩的傾向이 非現實的이라는것은 以上에서도보아왓거니와 그것은좀더 具體的으로말한다면이詩는 生活面에 感觸되는現實을 關聯的 全體性에서가아니라 다만 片片의 感覺的現象으로만 理解하고잇다는것이다

그리고 이詩에잇서서 『感傷性』과 『浪漫性』이 余한理由도 理解하기 에 그리 힘들지 안흘것이다 웨그러냐하면 이곳에서는『感傷性』과 『浪漫性』이 詩人의現實에對한 積極的態度를 멀리하기위하여서만驅逐當하엿슴을 볼수잇슴으로서이다 그러나―그것은 할수업는일이다 그들에게잇서서는社會는 『社會學』의硏究對象으로서만 藝術은『藝術學』의硏究對象으로서만理解되고 이두개의有機的結合이잇는代身 各各의分離對立만이 눈에보히는것이다。 그것만 말해두면 足할것이다

趙碧岩氏의詩的兩面

氏의作品은 언제나 抽象과 槪念으로만 흐르고만다。 거기에는 單純히 言辭의『헛소리』와 常識的表現과 槪念의露出과 觀念的인것――이것들은不純한 自然發生的인 아나키的인테리性우에 그뿌리를박고잇다――들이 뭐리치고 잇슬뿐이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不平과 反抗할줄은 알면서도 그것을 어더케(어데로)내쏘아야 조흘지를 모른다

그러하야 그것에까지 悲哀를 맛볼째에는 아조『絕望』과『衰頹』의구렁에로 미끄러진다

前者에屬하는것으로『暴風前의心情』(文學타임스) 『實際의傳說』(朝鮮日報)等等을 들수잇고 後者의속하는것으로『물에빗진가을』(?)(東亞日報)『農村三秋』(朝鮮日報)等等을 들수잇다

世界最大의뻐스

運輸會社에서 『다마스가스』와 『박닷드』間을二十四時間에連絡하고자만든『뻐스』인데 途中에砂漠及高原地帶에서쓰는車內의耐熱耐寒의設備가잇는世界最大의『뻐스』다

라디오

十二月二十二日(金曜)

第二放送 (波長四九二米)

◇午前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京城府廳發表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〇時五分 라듸오드라마 犧牲 스트린드·베르그原作 延專LF 라듸오드라마·클럽
◇同〇時四〇分 뉴-스
◇同二時 常識講話 新聞小說에對하야 (三) 金東仁
◇同四時 뉴-스職業紹介事項
◇同六時 童話 검둥의冒險 金泰洽
◇同六時二五分 朝鮮語講座 (十八) 權悳奎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話 (癸酉年의回顧) 康倘燮
◇同八時 (大)管絃樂 大阪交響樂團 指揮에마뉘엘멧텔
◇同八時四〇分 雜曲
一、伽倻琴倂唱 大丈夫
二、伽倻琴과大笒
가、방아타령
나、兩山道
다、노래가락
라、靑春歌
마、密陽아리랑
바、사발가
사、늴늬리야
伽倻琴 李日善 大笒 金泰榮
◇同九時 俗謠
一、小春香歌
二、달거리
三、백구타령
四、은실타령
五、楊柳歌
趙牧丹 金蓮玉

第一放送 (十二月二十二日金曜)

◇午前七時 (東) 基礎英語講座 (終講) 岡倉由三郞
◇同七時三〇分 (東) 라듸오體操
◇正午 時報 今日의프로그람發表
◇午後〇時五分 浪花節 京山 天風
◇同〇時四〇分 뉴-스
◇同二時 家庭講座 濱田 耕司
年賀狀이야기 杉浦非水史郞
◇同六時二五分 (大) 基礎佛語講座 (終講) 目黑 三郞
◇同七時 (東)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뉴-스
◇同八時 管絃樂 大阪交響樂團
◇同八時四〇分 連續라듸오復活(第二回)

林巨正傳 (246)

洪碧初 作
安碩柱 畵

봉학이가 달음질로 행길에 나와보니 사령들이 계향이의 량편팔쪽지를 잡고섯는데 계향이는 아니끌려가랴고 바둥거리며 악을쓰는중이엇다

『이놈들 기생노쿠게섯거라』

하고 봉학이가 소리를 질르니 사령들이 계향이를 노치도안는대신 끌지도못하엿다

『이놈들 냉큼 노치못하느냐』

사령들이 서로돌아보며 슬몃이 팔쪽지들을 노흐니 계향이는 대번 봉학이게로 달어와서 손에 매달리며 울음을 내노핫다

『울지말아 남보기 창피하다』

『나리 내가 잡혀가서 그몸슬매를 또마지면 나는죽소』

봉학이가 사령들을 보고

『너의안전이 이기생을 잡어오라드냐』

하고 물으니 사령들이 한에

『비』

하고 대답하얏다

『이기생은 내가 잡혀보낼수업스니 그리들알구 가거라』

『소인들이 그대루가면 안전에 죄책을 당합니다』

『무엇이 엇재 너의놈들이 죄책을 면하려구 잡어가야겟단말이냐 잡어갈수잇거든 잡어가봐라』

이때 마침

『이중군』

하고 형방비장의 불르는소리가 들려서 봉학이가 루우를 향하고

『지금곳 올라가네』

하고 소리쳐 대답한뒤 다시 사령들을 바라보며

『다리색들을 룽겨 노키전에 못가겟느냐』

하고 얼러대니 사령들이 저의끼리 서로보고

『그대루가세』

『할낫네』

하고 말하며 돌아서갓다 부윤이 동헌에 안저서 계향이 잡아오기를 기다리는중에 사령들이 빈손으로 들어오는것을보고

『잡아오란 기생년은 엇더케 햇느냐』

하고 처음부터 호령을나리니 사령하나는 그저잡아 잡숩시요하는 모양으로

『비』

대답하고 딸은사령하나는컨 언덕스럽게

『계향이를 잡엇습니다』

대답하얏다

『잡아왓스면 어듸잇느냐』

『잡엇다가 빼겻습니다』

『빼기다니 뉘게 빼겻단말이냐』

『이중군나리가빼서갓습니다』

『술그머니 잡아올것이지 누가 떠들고잡으라드냐』

『소인들은 떠든일업습니다 그년이 악을써서 이중군이 듯구 쪼처나왓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잡아오랫지 빼기고오라드냐』

부윤이 곳 형틀과매를 드리라고하야 두사령을 각각 매 십녀개씩 따리고

『너의두놈이 사흘안에 계향이를 잡아대령해라 그러지안흐면 너의놈볼기에 살점이 남지못할테니 그리알어라』

하고 말을 널른뒤에 삼문 박그로 쏠어내치게하얏다

계향이가 며느새도 밤낫 봉학이처소에서 살다시피하는사람이 진뉘두잔칫날 혼나고온뒤로는 감영안에만 파뭇처잇고 저의집에는 나가지아니하얏다 부윤의사령들이 공연히 계향이의집근처로 빙빙돌다가서 사흘을 지내고 맛고 다시 사흘 권보담호되게 억울한매를 한번 어더가지고나올때 두사령이 서로 짓거렷다

『우리가 무슨죈간』

『그망한 개색기년하나쌔닭에!』

『우리들은 맷복이 터젓네』

『사흘노리루 매를 맛구 사람이 견듸나 엇더케든지 그년을 잡어야지』

『그년은 감영안에 파무처잇구 우리는 감영안에 들어갈수업스니 엇더케하나』

『그럼 나는 오늘부터 집에 나가서 누어잇다가 사흘후에매나 마지러 들어올라네』

『그남아 잡으러나 단겨봐야지 언제까지든지 무한정매만맛구 살텐가』

『잡지두못할걸 잡으려다니느라구 헛수구까지하구 매를마질것 무엇잇나』

『가만잇게 그년을 감영안에서 쪼여내서 잡어보세』

『쪼여낼수가잇겟나』

『생각하면 조은수가 나오지 그려』

『나는 열흘궁구 생각해두조은수가 나올것갓지안은데』

『이러이러하면 그년이 설미나오겟지』

한사령이 동무사령의귀에 입을다히고 몃마듸 속은속은 말하니 그동무사령이

『되엇네 되엇서』

하고 손벽을치며 조하하얏다

一枚二人
朝鮮日報讀者優待券
上映 『文藝映畵』 永遠의微笑
映畵 成吉斯汗의假面
料金割引
階上 大人五十錢 小人三十錢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十二月二十日부터十二月二十三日까지
團成社

齒를히고強하게하는

半味の仁丹

新齒磨

새로운齒磨이오
香氣도맛도効果도
숫허驚異的!
녯적것의齒磨가튼건
到底히不及되는新鮮한것
꼭試用하야주시오!

粉 에適度의濕氣가잇슴으로、使用하야飛散치안코

壹 罐으로五十日이나使用되니、日常用에가장經濟的

齒 의美白効果一〇〇파-센트

松竹스타ー 坪內美子孃

懷中藥仁丹 本舖 森下博營業所